

현대 데님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의 표현양식

이 민 경 · 한 명 숙*

상명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상명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Feminism Expression Style of Modern Denim Fashion

Min-Gyung Lee and Myung-Sook Han*

Instruct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angmyu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angmyung University*

(2002. 6. 5. 접수: 2002. 7. 30.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xpressive style of radical feminism and post-modern feminism appearing on the contemporary denim fashion by examining pictures from professional fashion magazine Vogue.

For this study, I investigated documents to study the characteristic of radical feminism and post-modern feminism and classified the contemporary denim fashion into erotic look, endrogynous look and deconstructive look.

The results of study on the expression style of feminism reflected on the contemporary denim fashion were as follows:

First, radical feminism emphasizes that women's sexual feature is never inferior to men's. Therefore in denim fashion, erotic style which emphasize on women's sexual beauty is represented by making hot pants, mini skirt, halter blouse of denim and by using colored jeans and flower print or beads on denim.

Second, post-modern feminism has been represented by disregarding or intergrating the existed rule as refusing sexual discrimination. It has been represented in fashion as an endrogynous style by representing neutral gender image. Today, it is represented in denim fashion by mixing a different fabric with denim and matching womanish design with mannish design.

Third, post-modern feminism are classified into unfixed expression of genders and the deconstructive expression of methodology. The deconstructive expression of denim fashion is represented by using the damage of fabric by making a hole or tearing intentionally or fraying edge of denim. Also the unfinished designs and transformed dressing are used to express the deconstructive character in denim.

Key words : radical feminism(급진주의 페미니즘), post-modern feminism(포스트모던 페미니즘), denim fashion(데님 패션)

I. 서 론

패션은 인간의 정신과 감정의 직접적인 표현의 수단이며,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따라

그 특성이 반영되는 산물로서 각 시대마다 지배되는 이상들은 패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어져 왔다.

특히 1960년대말부터 일기 시작한 정치사회적인 여성운동의 영향에 힘입어 페미니즘(feminism)의 시

각에서 여성의 모습은 패션에서 새롭게 표현되어졌고, 이처럼 여성들의 의식이 담겨져 있는 페미니즘 패션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패션은 여성의 자아의식의 표현수단이며, 사회·문화적 현상을 반영하는 하나의 산물임을 인식할 때, 페미니즘은 패션과 불과 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패션에서 페미니즘의 부각은 1990년대 이후 국내의 논문(채금석, 광미영, 손미희, 김은실)등에서 페미니즘의 영향에 의한 여성복식의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페미니즘과 여성복식의 변화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페미니즘을 반영한 패션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오늘날 여성성의 인식의 변화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유니섹스 룩으로 대표되어지고 더없이 실용적이고 편안한 소재인 데님에도 성적인 에로틱화가 보여지고 있으며, 또한 여성적인 미의 영역에 남성적인 데님의 거친 이미지를 조화롭게 도입한 양성화의 일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현대 데님 패션을 연구주제로 다룬 것은 아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거친 울(wool) 소재나 가죽소재와 더불어 유니섹스웨어 또는 캐주얼 웨어에 많이 사용되어왔던 데님이 러플(ruffle), 레이스, 꽃무늬 프린트 등과 믹스되어 로맨틱하고 우아한 스타일을 비롯하여 엘레강스하고 섹시한 형태로, 또는 소재의 손상을 통해서 표출되는 빈곤과 파괴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등 새롭고 다양한 테크닉을 사용하여 데님을 한결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현대 데님 패션의 현상을 페미니즘 사상과 연관시켜 살펴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첫째, 이론적 배경으로서 페미니즘의 정의와 이론을 살펴보고, 둘째, 이러한 페미니즘의 이론을 토대로 하여 2000년대 이후 현대 데님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의 표현양식을 에로틱한 표현, 탈고정적 성 표현, 해체적 표현으로 분류하여 데님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셋째, 연구에 사용된 시각적 자료는 패션 전

문잡지인 Vogue 한국판의 2000~2002년에 걸쳐서 데님 패션을 타이틀로 한 기사에서 다루어진 2000~2002년 S/S와 F/W 컬렉션 사진을 선택하여 분석자료로 사용함으로써, 연구자의 부분적 채취로 인한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의 시기를 2000년대 이후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는 1960년대 유행했던 벨보텀 진즈, '70년대 저항문화 혹은 청년문화를 대표하던 진즈, 그리고 '80년대의 디스트로이드 진즈와 '90년대의 헐렁한 힙합 스타일의 진즈가, 2000년대 이후에는 페미니즘 트렌드와 맞물려서 기본적인 진즈의 형태를 벗어나 여성적이고 섹시한 혹은 과격적인 디자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상을 페미니즘 사상과 연관시켜 논의하고자 위함이다.

II. 페미니즘의 정의와 이론

I. 페미니즘의 정의

페미니즘의 어원은 여성을 의미하는 라틴어 페미나(femina)에서 유래된 단어로 여권주의 또는 여성주의를 뜻하며 17세기에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여 여성해방 운동 과정에서 생겨난 새로운 시각 또는 이론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즉 여성의 불이익 또는 성적 차별의 문제를 핵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상을 말한다¹⁾.

문학·예술 등의 제반 문화 영역에서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페미니즘은 “발생론적 차원에서 정치적·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함축을 지니는 까닭에 단일하게 정의되기 어려운 실정”이다²⁾. 그것은 또한 성차별의 근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론의 근거와 실천적 차원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기본적으로 페미니즘은 여성의 경험과 역사에 관한 것이며, 기존의 성별관계를 불평등한 것으로 보고, 사회내에서의 여성의 위치를 재정립하고, 동등한 성(gender)으로서의 여성성을 획득하려는 정치적·사회적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페미니즘의 목표는 역사·문화·정치·종교·경제 등 기존의 사

1) 오성환, *여성이 미래를 지배한다* (서울 : 두남, 1994), p.45.

2) 이종승, *포스트모던 상황속의 페미니즘 비평* (서울 : 선미술, 1991), p.21.

회제도 및 인간생활의 제반문제와 기저에 깔려 있는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부당성을 파헤치며, 잃어버린 여성의 주체성을 되찾고 여성에 대한 사회의 고정관념과 편협한 가치 체계나 개념을 찾아내고 바로 잡아 올바른 사회를 확립해 나가는 데에 있다³⁾.

2. 페미니즘 이론

일반적으로 페미니즘은 과거의 인본주의적 페미니즘(제 1기: 19C말~20C초)과 후기 페미니즘(제 2기: 1960~현재)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계몽사상과 자유사상에 입각한 과거의 인본주의적 페미니즘이 남녀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성별의 동질성을 주장하였던 반면, 비판과 저항정신에 입각한 후기 페미니즘은 여성의 성을 축으로 성별의 이질성을 주장하며 전개된다. 후기 페미니즘 혹은 신(新) 페미니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 단계의 페미니즘은 여성성에 대한 해석에 따라 '본질주의적 페미니즘(Essentialist Feminism)'과 사회문화적 페미니즘(Sociocultural Feminism)으로 나눌 수 있다⁴⁾.

본 논문에서는 후기 페미니즘에 입각해 현대 데님 패션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며, 후기 페미니즘의 두 갈래인 본질주의 페미니즘과 사회문화적 페미니즘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인 급진주의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을 기술하고, 그 내용을 패션의 표현양식들과 연관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1) 급진주의 페미니즘(Radical Feminism)

본질주의 혹은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남근중심주의(Phallogentrism) 시각에서 본 부정적 여성성 대신에 긍정적 여성성을 대두시키며, 여성적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남성으로부터 구별과 분리를 주장한다. 남근중심주의 시각에서 본 부정적 여성성을 시몬느 드 보봐르는 "일종의 타자로 구상화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여성성"이라고 주장하였다⁵⁾. 따라서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주체가

된 여성중심적 사고로 남녀간의 성 차이를 인정하여 여성성의 장점을 도입한 기존의 성체계를 전복시키려는 이론이다.

급진주의 페미니즘 이론은 여러 가지 상이한 이론들이 포함되어 있다.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억압이 모든 형태의 억압가운데 가장 근본적이다"는 억압의 근본적 성격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억압의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씩 의견을 달리한다. 슐라미스 파이어스톤(Shulamith Firestone)은 <성의 변증법(The Dialectic of Sex)>에서 여성은 출산 기능 때문에 생존을 위해 남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여성억압의 근원을 여성의 생물학적 현실, 즉 출산, 육아와 관련된 여성의 생리적 특징 등의 신체적 사실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신체적 기능은 기술에 의해 변화될 수 있고, 여성해방 역시 피임, 인공수정, 낙태, 불임 방법 등의 기술혁명을 통해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다른 한편 샬롯 번취(Charlotte Bunch)는 여성은 1차적으로 성차별주의에 의해, 2차적으로는 인종주의와 계급사회에 의해 억압되므로 무엇보다 성차별주의와 투쟁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여성들만의 독자적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⁶⁾.

또한 결혼이 성차별주의 사회라는 배경에서 존재하는 한 여성을 억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아 결혼의 폐지를 주장한다. 억압에서 벗어나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여성은 여성만의 공간, 여성문화의 창조가 필요하다는 주장⁷⁾도 여기에 기초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남성에 대한 여성 억압을 만들고 유지했던 모든 사회 질서의 합법성의 문제를 제시하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결코 열등하지 않다는 남녀의 이질론을 강조하면서 남성에게 의해 소유되고 통제되고 육체적으로 지배되는 세상에서 벗어나 여성의 특성을 살려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것에 그 의의를 두었다.

그러나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출산 능력이 여성에게 약점이나 강점이나 하는 문제는 자연적인 것이

3) 유은정, "현대복식에 나타난 페미니즘 표현양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p.4-5.

4) 김홍희, *한국여성주의 미술의 방향 모색을 위한 페미니즘 연구*, (서울: 미술세계, 1992), p.29.

5) 조세핀 도노반, 김익두·이월영 역, *페미니즘 이론*, (서울: 문예출판사, 1993), p.147.

6) 채수진,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본 현대복식의 앤드로지니스 현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석사논문 (1998), pp.9-10.

7) Maggi Hum, 김경순, 염경순 (역), *페미니즘 이론 사전*, (서울: 삼신각, 1995), p.58.

아니라 전적으로 사회제도의 성격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이므로 여성의 출산 능력을 약점으로 보았다는 점과, 여성문제를 전체 사회 문제와 인간 해방의 문제로 보지 않고 대남성 투쟁의 문제로 보았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⁸⁾.

이처럼 남녀 이질론을 강조하고 여성이 주체가 된 여성중심적 사고로써 남녀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가치있는 것으로 정당화 하는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사상은 패션에서 여성성의 장점을 도입한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그들의 사상을 표출하였다. 즉 과거의 여성의 특성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인 억압이었다면, 최근에 여성들의 신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하고 있다. 즉 이전의 여성의 육체를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여성의 육체를 해방함으로써 여성의 특성을 강조한 스타일로 표현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여성의 특성은 이전의 여성의 육체를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여성의 육체를 해방하는 것으로 부르짖으며 여자를 가정의 순결한 부인으로부터 성적 존재로 여자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과거처럼 남성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 스스로 즐기고 자신의 몸매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성을 강조한 선정적인 스타일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사상은 패션에서 여성의 인체를 속박하던 콜셋, 거들, 브라 등 많은 속옷들이 줄어들는 한편, 노출(미니, 비키니, 모노키니 또는 비치는 옷감)과 여성 신체의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선정적인 스타일이 성행하였는데 이것은 오늘날 여성들이 이전의 남성 중심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여성미를 새롭게 부각한 것이다. 이는 여성들이 의복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과거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⁹⁾.

2) 포스트모던 페미니즘(Postmodern-Feminism)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은 현대 지성을 대변

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요구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상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가부장제와 다른 과 재현체계를 불신한다는 의미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의 이해가 부합될 뿐 아니라 '타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을 결합시키는 동기가 된다. 실로 포스트모더니즘 논의에서 타자로서의 여성이 빠질 수가 없고, 페미니즘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원리와 방법론을 대폭 수용하고 있다¹⁰⁾.

타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출발된 포스트모더니즘은 타자로서의 여성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페미니즘의 새 시대를 열었다. 페미니스트들은 남녀 이분법을 해체시킴으로써 성의 차이를 무효화하고 성의 정체성을 거부함으로써 자연적인 성(sex)이 아닌 문화사회적으로 형성된 성(gender)으로 시선을 돌렸다. 즉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남녀 성 구분 자체를 남녀 불평 등으로 보면서 종래의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초월한 이성의 요소를 공유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주장하여 여성만의 해방운동에서 남녀 공동의 인간해방, 주체성의 해방운동으로 전환해 나갔다¹¹⁾.

따라서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자신의 성을 부정하지 않고 남성·여성이 가지는 각각의 아름다움을 서로 교차시켜 새로운 감각을 나타내는 앤드로지너스가 패션에 표현되었다. 즉, 종래의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을 뛰어 넘은 이성(異性)의 요소를 공유한 새로운 현상으로 여성에게 있어서는 사회진출에 따른 활동적인 삶 자체를 포함한 멋이고 남성에게 있어서는 여성의 자유로운 감성과 미에 대해 약의 없는 모험을 시도하는 것으로 앤드로지너스 룩은 나타나고 '84년 이래 성혁명으로 패션에서 화제가 되어 나타나고 있다¹²⁾.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은 후기 산업사회에서 해체주의라는 새로운 영역을 발굴했는데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에 포섭되는 하부개념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동의어로 인식되며 대표적인 철학자로 자크 라캉

8) 김은실, "페미니즘이 1990년대 패션에 미친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12-13.

9) 강정화, "현대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1993), pp.27.

10) 이소영, 정정호,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한신문화사, 1992), p.27.

11) 김은실, 전제서, pp.12-13.

12) 나채희, "New Wave Fashion",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p.95.

(Jacque Lacan), 자크 데리다(Jacque Derrida), 미셸 푸코(M. Foucault) 등이 있으며, 해체주의는 포스트구조주의 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동의어로 인식된다¹³⁾.

포스트구조주의는 데리다(Derrida)의 해체 또는 해체주의를 중심으로 한 텍스트로서의 세계와 그것의 현상들을 읽는 새로운 시각이다. 그녀에 의하면 모든 텍스트는 스스로 해체하는 허부 코드를 배제한 채 세상에 등장한다. 비평가론가가 행하는 해체는 이중의 품짓으로 일어난다. 첫 품짓은 이항대립이 발생하는 바로 그 경계에서 텍스트가 품고 있는 남편을 응시하며 그것을 해체, 분석하는 것이고, 둘째 품짓은 해체된 것들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의미창출을 시도하는 것이라는¹⁴⁾ 그녀의 해체론에 입각해서 남녀를 규명함으로써 해체론적 페미니즘을 태동시킨 출발점이 되었다.

해체론은 구조주의에 반기를 들고 나타난 포스트구조주의 이론으로, 데리다(Derrida)는 절대적인 기초나 제일 원리에 의존하는 모든 사고 체계를 형이상학적이거나 하고 체계와 통일성의 원리를 해체하고자 시도하였다¹⁵⁾. 개체간의 차이(이분법-외적)를 억압함으로써 만이 가능하다는 것이 해체론의 주장이다. 해체주의자들은 타자성을 찬양하며 언어와 지식과 같은 지배적인 총체화 구조들을 비판하는 것이다¹⁶⁾.

데리다(Derrida)는 '무엇이 해체주의이다'라고 말하는 대신 '해체주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해체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그녀는 유일한 진리란 있을 수 없고, 하나의 진리를 고집하는 것은 독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은 진리의 현존을 믿어왔던 서양철학 사상의 전통을 그 근원부터 해체하는 것이며, 인간의 인식과 지식의 절대적인 기준은 불가능하며 불확실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Derrida의 해체이론은 닫힌 체계에 대한 저항이며, 동시에 불안정과 무질서들 있는 그대로 포용하며, 다양성과 열림을 추구하는 지적 탐색인 것이다. 결국 불안정성이나 비결정성의 한계로 인한 의미의 모호성을 인정하고, 그

의미들을 산중시키는 것이 해체철학의 개념이다.

이러한 해체주의 양상은 복식에서 소외되었던 제3세계의 양식들을 복식에 수용시킴으로써 기존 서구 중심의 복장 체계에 새로운 사고를 가져다 주었고, 전통적인 의복의 형태를 무너뜨리거나 심지어는 형태를 무시하고, 봉제하지 않는 의복, 또는 소개에 대한 손상 즉 구멍을 내거나 찢거나 올풀기에 의해 표출되는 빈곤과 파괴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푸어 룩(poor look) 등 서구전통 복식이 취해 온 표면적인 아름다움과는 다른, 빈부, 성, 미·추개념, 서구 중심주의에 알력을 가하는 복식을 제시하였다¹⁷⁾. 패션에 있어서 해체주의의 개념은 디자인의 방법론적인 면에서 소재, 디자인, 착장방식에 의해서 표현되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이란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 이론의 철학적 관점이 서로 일치된 사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비판 또는 모든 고정된 미에 대해 의문시하여 안정되고 지배적인 문화에 도전하며 성역할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감성을 가진 사상을 말한다.

Ⅲ. 현대 데님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의 표현양식

올봄은 '데님열풍'이 다양한 디자인과 디테일을 사용하여 패션가를 휩쓸고 있다. 즉 다른 소재와의 결합과 각종 디테일, 세시함을 강조하는 디자인 등으로 데님의 원초적 이미지의 뻣뻣함을 탈피한 디자인이 선보이고 있다. 또한 청바지나 청스커트 등에 국한되어 있던 아이템이 트랜치 코트, 구두, 원피스, 슈트 등 대폭 영역확장을 이루고 있다. 청바지의 개념도 아무태서나 입을 수 있는 편한 옷이 아니라 첨단 패션아이템으로 바뀌고 있다.

원래 블루진의 기원은 육체노동, 미국 등과 관련된다. 이러한 블루진이 노동복이 아닌 의복으로 착용된 최초의 경우는 1930년대 말과 1940년대 남서부

13) 정홍숙, "Post-modernism 복식의 복고성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제25호 (1995), p.73.

14) 김경용,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1994), p.328.

15) 정은주, "현대 복식 디자인의 해체주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5), p.9.

16) 이소영, 정정호, *전개서*, p.351.

17) 유은정, *전개서*, p. 66-73.

미국에서 주로 예술가와 화가에 의해 확용된 때이다. 이후 1950년대에는 모터사이클 갱(bikers), 1960년대에는 신좌파(New Left Activists)와 히피(Hippies) 등이 착용했다. 이때의 블루진은 청소년 하위문화와 비동성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¹⁸⁾. 이때부터 블루진은 유니섹스와 젊음의 상징이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 진즈는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고, 미국, 유럽과 다른 많은 나라에서 40세 이하의 대부분 사람들은 적어도 한 벌의 진즈는 모두 소유하고 있었으며, 카우보이 보습의 웨스턴 스타일이 유행하여 넓은 가죽 벨트와 함께 진즈를 착용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진즈의 일반화가 이루어져 인종, 성, 연령의 계층에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착용되었으나, '80년대 초반에 다양한 소재의 개발로 캐주얼 팬츠가 많이 나타나면서 진즈의 선호도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1981년에 잠시 베이직 진즈가 유행했지만 1984년에 다시 침체되었다. 그러나 1985년에 디스트로이드 진즈(destroyed jeans)가 상품화되면서 매우 인기를 끌게 되었고 Levi's사는 베이직으로 돌아가자는 캠페인을 펼치면서 501진즈의 부활과 함께 진즈시장이 부활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에는 comfort 스타일과 oversized 스타일이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었으며, 인디안 베스트나 세련된 카 레이서 룩과 함께 매치시켜서 진즈를 입었고, 1993년에는 네오 히피룩이 유행하면서 벨보텀 진즈가 나타났으나, 오래 유행하지는 않았다. 1994년 이후 클래식한 botton fly진즈가 우세를 보이고 있으며, 랩퍼들에게서 나온 밀워가 긴 합합 스타일과 다리가 길어 보이는 세미 피터드 스타일이 선호되고 있다. 또한 근래에는 중고 진즈의 부활과 더불어 Levi's의 열풍을 다시 일으켰다¹⁹⁾.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블루진은 페미니즘이 메가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어느 시대보다도 다양한 디테일 장식과 디자인으로 블루진의 새로운 변성기가 시작되었다. 샤넬의 디자이너 칼 라거펠드에 의해 시작된 히피의 21세기 버전인 데님의 새로운 룩은 다양한 피트와 디자인, 그리고 상상을 초월

하는 화려함으로 표현되면서 데님은 자유롭게 버전 업시킬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소재로 떠올랐으며²⁰⁾, 오늘날 블루진은 캐릭터 캐주얼 매장에서 명품 브랜드까지 가장 주목받는 아이템이 되었고, 가장 섹시한 아이템으로 부상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디자인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2002년 S/S 컬렉션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었던 소재 데님에 국내외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테크닉과 수공예적인 아이디어를 믹스해가면서 '80년대의 화려하고 섹시한 페미니티로 복귀하고 있으며²¹⁾ 이러한 데님 패션의 경향은 페미니즘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급진주의 페미니즘과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 이론에 입각하여, 현대 데님 패션에 표현된 표현양식을 에로틱한 표현, 탈고정적 성 표현, 해체적 표현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김은실의 논문을 토대로 하여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의 특징을 형태, 색채, 소재, 착장방법의 외적형식에 따라서 분류함으로써,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분류와 논의를 피하고자 하였다.

1. 에로틱한 표현

현대 패션의 다양한 흐름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의 하나가 페미니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남녀의 성적 차이를 인정하고 여성성을 과장시키지도 또 숨기지도 않은 채 있는 그대로의 여성의 성을 찬양하고 남녀의 이질성을 주장하는 급진주의 페미니즘에 그 기지를 두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녀동질론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여성의 성을 무시한 경향에 대한 반발과 21세기는 더 이상 이성의 시대가 아니라 감성의 시대 즉, 여성의 사려깊음이나 배려, 포근함, 현명함이 훨씬 더 가치있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움직이는 파워를 지닌 여성들이 추앙받는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미국의 디자이너 토드 올드햄은 '패션이 페미니티를 이상화하는 시기가 오면 거기에는 반드시 빨간

18) 유송옥 외, 복식문화, (서울: 교문사, 1996), p.268.

19) <http://www.young.hk.co.kr/woman/fashion>

20) Vogue Korea, (2000. 3), p.182.

21) Vogue Korca, (2002. 2), pp.159-161.

매니큐어가 등장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는 레드 로 대표되는 '여성적인' 컬러가 단순히 '섹시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파워풀한 캐릭터'를 표현하는 또 다른 수단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서 진정한 여성스러움이 의미하는 것은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여성스러움이 아니라, 여성을 여성 그 자체로 인식하려는, 스스로에게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며 거기에 만족하는 '자신감 있는 여성스러움'을 의미한다²²⁾.

여성성을 강조한 페미닌적인 데님 패션의 예로써 <그림 1>에서 보듯이 데님에 여성적 수공예 기법을 활용하여 화려한 꽃무늬 자수가 놓여 있는 팬츠는 한쪽 어깨를 노출시키고 플로랄 프린트가 되어 있는 블라우스와 매치되어 있으며 <그림 2>에서도 자수가 놓여진 데님 팬츠와 상의에는 꽃무늬가 프린트되어 있고 비치는 하늘하늘한 쉬폰 소재의 블라우스와 매치되어 여성의 성적 차이를 분명히 하고 로맨틱하며 페미닌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은 남성적 또는 유니섹스의 소재인 데님을 사용하고 허리부분을 노출한 홀터 디자인의 상의와 비대칭의 랩 스킷에 가죽으로 바이어스 처리를 하여 럭셔리하고 여성의 성적인 매력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4>는 진한 인디고 블루진에 플리츠가 들어가 있는 미니스



<그림 3> Christian Dior (00 S/S, Vogue, 12월호) <그림 4> Chanel (01 F/W, Vogue, 5월호)

커트는 뻗뻗한 데님 소재에 여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스타일이다.

<그림 5>는 전통적으로 드레스 아래에 입는 화운 데이션인 뷔스티에를 데님으로 만들었으며, 망크를 뷔스티에의 트리빙 장식으로 처리함으로써 데님과 극과 극을 이룰 것 같은 망크를 사용하여 여성성을 강조하고 럭셔리한 느낌과 더불어 약간은 도발적이고 섹시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림 6>에서는 한쪽



<그림 1> Roberta Cavalli (02 S/S, Vogue, 12월호) <그림 2> Anna Sui (02 S/S, Vogue, 12월호)



<그림 5> Paul Smith (01 F/W, Vogue, 5월호) <그림 6> Jean Paul Gaultier (00 S/S, Vogue, 12월호)

22) Vogue Korea, (2002. 2), p.68.

어깨부분을 노출한 블라우스에 하의에는 데님을 사용한 매우 짧은 마이크로 미니스커트를 착용하여 다리부분을 노출시킴으로써 여성의 자유로움과 관능미를 표현한 패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데님은 색채를 통해서도 핑크, 라일락, 흰색 등의 컬러풀한 색채를 통해서 여성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그림 7>에서 보듯이 엷은 보라색의 데님 팬츠를 통해서 페미니니티를 표현하면서 아주 신선하고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8>은 페미닌한 빨간 톱과 스칼렛 장식을 한 니트 자켓과 매치시켜 데님의 부드럽고 로맨틱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데님 패션에 있어서 여성성의 표현은 남성에 구속되어 있는 여성의 자아를 탈피하여 여성 본래의 성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패션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다.

2. 탈고정적 성 표현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남녀 이분법을 해체시킴으로써 성의 차이를 무효화하고 성의 정체성을 거부함으로써 자연적인 성(sex)이 아닌 문화사회적으로 형성된 성(gender)으로 시선을 돌렸다. 즉 남녀 성구

분 자체를 남녀 불평등으로 보면서 성을 초월한 이성의 요소를 공유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주장하였다. 즉 주체성의 해방운동으로 전환시킨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근거하여 남성이든 여성이든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중적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남녀 양성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패션에 나타난 대표적인 양성성의 표현은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ous look)이라고 할 수 있다.

앤드로지너스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남자를 칭하는 '앤드로스(Andros)'와 여자를 나타내는 '지나케아(Gynacea)'의 합성어로 남자와 여자의 특징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²³⁾. 즉, 앤드로지너스란 이성·공격성·인내·순종·직관 등으로 대표되는 여성적 특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인간상태가 패션에 반영된 것으로 남자와 여자의 특징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룩을 의미한다²⁴⁾.

현대 데님 패션에 표현된 앤드로지너스 룩은 <그림 9>에서 보듯이 상의에 남성의 상징인 직선적인 테일러드 자켓을 착용한 반면에 하의에 부드럽고 광택이 나는 새틴 스커트에 앞부분에 깊은 슬래쉬와 스커트의 헴라인을 레이스로 처리함으로써 이질적인



<그림 7> Lanvin
(00 S/S, Vogue, 12월호)



<그림 8> Chanel
(00 S/S, Vogue, 12월호)



<그림 9> Celine
(01 F/W, Vogue, 5월호)



<그림 10> Marc
(02 S/S, Vogue, 12월호)

23)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Y: Fairchild Publications, 1998), p.9.

24) Vogue Korea, (2001. 5), p.200.

소재의 통합으로 상·하의에 대조적인 소재를 공존시켜 양성이 공유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에서는 어깨에 견장이 달린 남성적인 부분이 있는 데님 자켓에 하의에는 하늘색 바탕에 연한 핑크색 꽃무늬의 쉬폰 소재의 여성적 특질의 티어드 스커트를 공존시켜 딱딱한 느낌과 부드러운 느낌의 소재로 상·하의에 양성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은 직선적이고 매니쉬한 느낌의 스트라이프의 테일러드 팬츠와 퍼프 슬리브의 로맨틱한 데님 자켓으로 디자인적인 면에서 양극적인 이미지의 통합을 느낄 수 있다. <그림 12>는 나비문양을 붙이고 양쪽에 슬릿을 넣어서 여성적인 느낌을 주는 데님 팬츠에 상의는 셔츠에 남성복 아이템인 넥타이를 착용하여 매니쉬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여기에 연미복을 연상시키는 블랙의 테일러드 자켓의 딱딱함에서 상·하의의 디자인의 이분화로 인하여 서로 다른 상의 특징적인 의상을 하나의 인체위에 조합시킴으로써 양성이 공유된 통합성을 표현하고 있다.

3. 해체적 표현

해체주의는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이원론적 개념

을 재구축하는 것으로, 소의된 것, 타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탈중심화를 지향함으로써 포스트모더니즘의 억압된 것들의 복귀현상과 맥을 같이 하며 남성 중심주의를 해체시키고 나아가서는 탈중심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⁵⁾. 이러한 탈 현상으로 나타나는 다원주의는 해체주의라는 대항문화를 바탕으로 탈 구성, 전위, 무질서, 파괴, 다변화, 형태의 왜곡, 단편화 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동일성, 전체성을 만들어내는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것이 해체개념이다.

이러한 해체성은 패션에 있어서 모든 일반적 디자인 개념을 깨뜨리는 '해체패션'으로 놀랍고 다양한 전위적 시도들이 보여졌으며, 복식의 모든 구성요소가 해체되어 얽혀있고, 복식에 사용되어왔던 소재의 고정관념이 탈피되었으며, 서로 치환과 차용으로 재구성되었다.

현대 데님 패션에 표현된 해체적 표현은 <그림 13>에서 보듯이 짙은 블루진 상의의 앞부분과 소매 트임부분의 울을 풀어서 소재의 손상을 통한 해체적인 디자인의 느낌을 준 자켓과 <그림 14> 역시 롤업된 청바지의 한곳을 찢어서 울을 푼 것에서 과시적인 빈곤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15>는 여러 조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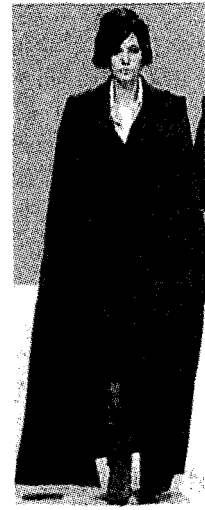
<그림 11> Dolce & Gabbana (01 F/W, Vogue, 5월호)



<그림 12> Dolce & Gabbana (00 S/S, Vogue, 12월호)



<그림 13> Sonia Rykiel (01 F/W, Vogue, 5월호)



<그림 14> Eric Bergere (01 F/W, Vogue, 5월호)

25) 정은주, 전게서, p.30.



〈그림 15〉 Junya Watanabe 〈그림 16〉 Luella
(02 S/S, Vogue, 12월호) (02 S/S, Vogue, 12월호)

절개된 데님을 연결하여 가장자리의 울을 풀고 완벽하게 커팅된 디자인을 통하여 독창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16〉은 상의와 스커트의 헬라인의 울을 풀고 스커트의 요크부분의 스티치가 겹으로 드러나게



〈그림 17〉 Antonio Berardi 〈그림 18〉 Christian Dior
(01 F/W, Vogue, 5월호) (00 S/S, Vogue, 12월호)



〈그림 19〉 Dolce & Gabbana 〈그림 20〉 Patty Shelabarger
(01 F/W, Vogue, 5월호) (00 s/s, Vogue, 12월호)

박고 스커트의 개더가 들어간 아래부분과 영성하게 요크부분을 연결하고 울을 푼 것에서 미완성된 듯한 디자인을 통하여 기존의 완성된 패션에 대한 기준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림 17〉은 깔끔하게 완성된 다른 부분과는 대조적으로 너치드 칼라와 라펠부분의 울만을 풀어서 칼라가 미완성된 듯한 디자인을 통하여 칼라부분에 시선을 집중시킴으로써 기존의 통상적인 자켓의 개념을 해체시키고 있다. 〈그림 18〉은 울 풀린 에지를 그대로 살린 포켓을 팬츠의 양쪽에 붙여서 패션에 고정관념화된 일반적인 개념을 해체시킨 디자인의 느낌을 주었으며, 〈그림 19〉는 팬츠 전체에 부분적인 커팅 선을 넣고 안전핀으로 마무리하여 핑키한 느낌과 동시에 푸어 룩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림 20〉은 진 팬츠를 뜯어내어 니렁스 스커트로 만들고 울이 풀린 상태로 착용함으로써 의상구조의 질서를 완전히 해체함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의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림 21〉은 벨트부분을 떼어내어 하의에 장식으로 활용한 디자인에서도 역시 기존의 질서를 뛰어넘는 기발한 형태를 볼 수 있다. 이처럼 데님 패션에 표현된 빈곤의 미는 미완성된 듯한 디자인, 이질적인 소재의 통합, 소재의 손상을 통한 해체적인 디자인으로 표현되어졌다.



〈그림 21〉 Christian Dior
(00 S/S, Vogue, 12월호)

IV. 결 론

본 논문은 급진주의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이론에 의거하여 현대 데님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의 표현양식을 에로틱한 표현, 탈고정적 성 표현, 해체적 표현으로 분류하여 데님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급진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의 억압이 성 역할에 있으며, 여성의 성적 특징은 남성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결코 남성에 비해 열등하지 않는다는 본질주의적인 성을 강조하면서 성적 차별의식을 표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데님 패션에 있어서 여성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여성적인 곡선의 표현과 수공예적 장식기법 그리고 신체의 노출에 의하여 여성의 성적 매력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즉 데님을 소재로 여성적인 디자인을 사용한 미니스커트, 핫팬츠, 홀터 블라우스, 뷔스티에, 데님위에 꽃무늬 자수나 비즈 장식, 다양한 컬러진 등을 통하여 여성의 성적 매력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여성 스스로가 남성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여성 본래의 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남녀 이분법을 해체 시킴으로써 성의 차이를 무효화하고 성의 정체성을 거부함으로써 종래의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초월한 이성의 요소를 공유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사상은 종래의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을 뛰어 넘은 이성의 요소를 공유한 새로운 현상으로써 앤드로지너스 스타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유니섹스와는 달리 남녀 공통된 의복의 교류가 아닌 남성과 여성의 고정관념에 의한 전유물로써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아이템을 서로 상호교환하여 성을 초월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오늘날 데님을 사용하여 앤드로지너스 룩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질적인 소재의 통합과 상·하의 디자인의 이분화 등을 통하여 표현되었다. 즉, 남성적인 테일러드 자켓이나 넥타이 등의 아이템과 여성적인 스타일의 배치 또는 뽀뽀하고 유니섹스 룩의 대표적인 소재 중의 하나인 데님을 쉬폰이나 새틴과 같은 부드러운 소재와 매치하여 통합된 성을 표현하였다.

셋째, 해체주의 페미니즘은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이원론적 개념을 재구축하는 것으로, 소외된 것, 타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탐구심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탈 구성, 전위, 무질서, 파괴, 다변화, 형태의 왜곡, 단편화 등으로 나타남으로써 기존의 복식체계에 새로운 사고를 가져다 주었다. 패션에서 해체적인 표현은 소재, 디자인, 착장방식의 변형 등을 통하여 기존의 복식미의 균형 및 질서를 파괴시키는 형태로 또는 전혀 다른 패턴이나 스타일을 같이 사용하거나 찢거나 구멍을 뚫어서 유희미적인 형태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데님에 고의적으로 구멍을 내거나 찢거나 울퉁기 등으로 인한 해체적인 디자인 그리고 벨트부분을 떼어내어 다른 의복에 연결시키거나 올 풀린 포켓을 팬츠에 덧붙여 전혀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하거나, 팬츠에 슬래쉬를 하고 안전 핀으로 고정을 한 형태의 파괴를 사용하여 해체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참고문헌

- 강정화 (1993). 현대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택영 (1990).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

- 음사.
- 김동일 편저 (1993). *성의 사회학*. 서울: 문음사.
- 김민자 (1995). *Glamorous, 멋을 아는 생활*. 제일모직.
- 김상환 (1996). *해체론 시대의 철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김은실 (1999). 페미니즘이 1990년대 패션에 미친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옥희 (1983). *여성학 영역별 연구: 필학적 여성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Maggie Humm 저. 심정순·염경숙 (역) (1995). *페미니즘 이론 사전*. 서울: 삼신각.
- 유송옥 외 (1996). *복식문화*. 서울: 교문사.
- Rosemarie Tong 저. 이소영 (역) (1995). *페미니즘 사상*. 서울: 한신문화사.
- 이소영, 정정호 (1992).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한신문화사.
- 이종승 (1991). *포스트모던 상황속의 페미니즘 비평*. 서울: 선미술.
- 조세핀 도노반 저. 김익두, 이월영 역 (1993). *페미니즘 이론*. 서울: 문예출판사.
- 김영경 (1995). 한국 여성 예인의 삶과 예술에 나타난 페미니즘 연구. *한양여전 교수논문집*. Vol. 18.
- 김은식 (1999). 페미니즘이 1990년대 패션에 미친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미영 (1990). 여성해방운동이 서양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체희 (1986). *New Wave Fashion*,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미희 (1997). 페미니즘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은정 (1997). 현대복식에 나타난 페미니즘 표현양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주 (1995). 현대 복식 디자인의 해체주의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금석 (1993). *Feminism이 서양복식에 미친 영향*, 국립창원대 교수논문집.
- 채수진 (1998).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본 현대복식의 엔드로지너스 현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alasibetta, Charlotte Mankey. (1998).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Second ed. NY:Fairchild Publications.
- Evans, Caroline and Thornton, Minna (1989). *Women & Fashion : A New Look*, London: Quartet Books.
- Davis, Fred (1992). *Fashion, Culture and Identi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nstance, White (1998). *StyleNoir*. The Berkley Publishing Group.
- Steele, Valerie (1996). *Fetish: Fashion, Sex & Power*. Oxford University Press.
- <http://young.hk.co.kr/woman/fashion>. 올봄 '섹시데님'온다 Vogue korea(2000). 3월호.
- Vogue korea(2001). 5월호.
- Vogue korea(2002). 2월호.